

잘 나가는 HEV... 멈춰선 EV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현대차그룹, 시장대응 '구슬땀'

상반기 HEV 판매 40만대 돌파
카니발 등 미니밴 신규 모델 추가
"유연한 대응체계로 수익성 제고"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HEV)가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극명한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HEV 판매 비중은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는 반면 EV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4월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HEV 판매 비중은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올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는 올해 상반기 전체 361만9631대를 판매했으며, 이 중 HEV가 차지하는 비중은 11.3%(40만8799대)로 집계됐다.

반기 기준으로 현대차·기아 전체 판매에서 HEV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고, 하이브리드 판매 대수가 40만대를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

·기아는 EV뿐만 아니라 HEV 모델(PHEV 포함)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 지속적으로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현대차와 기아의 전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지만 HEV 판매량은 같은 기간 21.2% 급증했다. EV 판매가 같은 기간 17.0%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HEV의 인기를 이끈 핵심 라인업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 투싼 HEV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8만5000대가량 팔렸다. 쏘타제 HEV의 판매량도 4만5100대로 같은 기간 80.0% 급증했다. 기아는 스포티지 HEV가 14.0% 늘어난 6만7600대, 쏘렌토 HEV가 14.2% 증가한 4만3300대씩 판매됐다.

이러한 HEV 실적 상승은 최근 2~3년간 전기차 캐즘을 겪으며 주춤하는 사이 현대차·기아가 그 대안으로 HEV를 내세워 시장을 공략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현대차·기아는 승용 모델인 아반떼 HEV, 그랜저 HEV는

물론 레저용 차량(RV)에서도 소형부터 중형까지 대부분 차종에 HEV 모델을 내놨다. 두 회사는 현재 16종에 달하는 HEV 모델을 판매 중이다. 최근에는 카니발, 스타리아와 같은 미니밴에도 HEV 모델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현대차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도 HEV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HMGM A)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HEV 모델 생산 시설을 갖추겠다는 계획도 공개한 바 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당분간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비해 HEV 모델 개발과 판매에 집중하는 유연한 대응 체계를 가져가는 게 시장에서 판매량 확보와 수익성 제고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전동화 전환이 필수적인 만큼 신규 전기를 지속 투입해 전기차 시장 선도적인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S전선, LS EV 코리아 멕시코공장 착공식

지난 2일 멕시코 케레타로주 코레이도라시 산업단지에서 버스덕트 공장 착공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S전선

LS전선, 버스덕트·배터리 부품 공장 착공

멕시코 케레타로주 산단 위치
북미시장 수출 거점 육성 방침

LS전선이 멕시코에 신규 공장을 착공하며 최근 미국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 결정에 이어 북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LS전선은 지난 2일 멕시코에 버스덕트(Busduct)와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장 등 두 개의 공장을 착공했다고 4일 밝혔다.

멕시코 중부케레타로주 산업단지에 약 12만6000㎡(약 3만8000평) 부지에 연면적 1만6800㎡(5082평)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제품을 양산하게 된다.

LS전선은 케레타로 공장을 북미 시장에 대한 수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멕시코는 저렴한 인건비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

C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대용량 전력 배전 시스템인 버스덕트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멕시코 공장은 경북 구미, 중국 우시 공장과 LS에코에너지의 베트남 호찌민 공장에 이어 LS전선의 네 번째 버스덕트 생산 거점이 될 것이다.

LS전선은 또한 배터리 부품도 생산할 예정으로, 폴란드 공장과 함께 배터리 부품 사업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전략이다.

LS전선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 멕시코의 산업 인프라와 제조 경쟁력을 결합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특히 버스덕트의 경우 AI 데이터센터 시장의 확대에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조선업계, 줄파업 '암초'... 호황기 제동 걸리나

임단협 난항... 노조 잇달아 파업 예고
"노사 갈등 피하고 힘 모아야 할 때"

조선업계가 올해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불안한 노사관계가 향후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노사 갈등은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열린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왔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것이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6월 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이어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15만9800원 인상, 성과급 산출 기준 변경, 정년 연장, 승진 거부권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름 휴가가 끝나는 오는 8일 이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측과 임단협 갈등을 빚고 있는 한화오션 노조 또한 휴가 복귀 후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일고 있다. 한화오션 노조는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된 사측과의 임단협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태다. 이에 지난 15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지난 7월 22일 조합원 투표로 파업을 가결했다.

국내 조선업은 십수 년 만에 호황기에 들어섰다. 업황을 가늠하는 지표인 신조선가치수는 16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조선해운 시장 분석

업체 클라크스너리처에 따르면 이 지수는 지난 7월 중순에 187.91까지 치솟았다.

HD현대그룹의 조선·해양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 12조1311억원, 영업이익 536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8%, 92% 증가했다. 한화오션은 상반기 매출액 4조8197억원, 영업이익 433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7.8% 증가, 흑자 전환했다. 삼성중공업 역시 상반기 매출액 4조8798억원, 영업이익 2086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37.4%, 165.7%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계가 16년 만에 호황기를 맞이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사 갈등을 피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 U+ "연내 '우리가게패키지 AX 솔루션' 고객 3만명 확보"

1만여건 데이터 활용 솔루션 개선

LG유플러스가 현재 1만2000명 수준인 'U+우리가게패키지 AX 솔루션' 사용 고객을 연내 3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음식점 '파브리키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약 1만여건의 데이터를 활용해 100여개 이상의 인사이트를 도출, 솔루션 개선 및 영업 과정에 접목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이 U+POS를 이용해 결제하는 모습 /LG U+

LG유플러스는 음식점 사장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식당을 직접 운영해 고객 경험을 생

생하게 체험해 보는 프로젝트 '식당연구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강남점 '만두배우는 식당'에 이어 올 4월 용산점 '파브리키친'을 열고 AI 전환(AX) 솔루션을 포함한 'U+우리가게패키지'를 사장님 관점으로 시험해 보고 사소한 고객 불편까지 찾아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두 식당을 운영하며 얻은 인사이트를 'U+우리가게패키지 AX 솔루션'에 지속 적용하고 고객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카카오프렌즈와 '서울 씬머비치' 즐기세요"

카카오 새로운 캐릭터 IP경험 제공

카카오는 카카오프렌즈가 도심에서 여름철 피서를 즐길 수 있는 '2024 서울 씬머비치'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2024 서울씬머비치는 서울관광재단이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더 많은 시민이 광화문 광장에서 여름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2배 커진 물놀이 시설로 개장했다. 오는 11일까지 운영된다.

카카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캐릭터 지식재산권(IP)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 기간동안 광화문 광장의 세종



'2024 서울씬머비치' 전경. /카카오

대왕 동상 뒤 워터파크 존은 카카오프렌즈로 꾸며진다. 수영모와 고글을 쓴 라이언과 춘식으로 장식된 약 7.5m 높이의 워터 슬라이드(미끄럼틀) 2개와 40m 길이의 대형 수영장을 중심으로, 포토존과 이벤트존을 마련해 다채롭게 행사를 즐기도록 구성했다.

/이혜민 기자 hyem@

네이버, '지식iN PARIS 3382' 이벤트

평일 오후 3시 33분 질문 업로드

네이버가 제33회 파리 올림픽을 맞아 해 '지식iN PARIS 3382' 이벤트를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식iN PARIS 3382는 지식iN에서 제33회 파리올림픽 관련 토픽에 대해 삼삼오오 모여 빨리 이야기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이용자들은 이벤트 기간 내 지식iN '오늘의 질문' 카테고리에서 평일 오후 3시 33분에 2개씩 올라오는 질문에 답변을 남기면 된다. 질문으로는 올림픽을 주제로 10·20세대가 빠르게 반응하고

답할 수 있는 것이 올라온다. 예를 들어 '닭고깃국물 끓여먹는 건 건강에 좋을까?' '경기 전 루틴처럼 중요한 날 나만의 행운 루틴은?' '선수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MBTI별 친해하는 방법' 등이다.

총 20개의 질문이 업로드될 예정이며 ▲각 질문에 선착순 82명 내로 이미지나 링크를 넣어 답변을 남긴 이용자(1640명) ▲이벤트 기간 10개 이상의 오늘의 질문에 답변을 남긴 이용자(330명) ▲각 질문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이용자(200명)에게 소정의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혜민 기자